

BREAKDOWN OF THE VAGINAL ECOSYSTEM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The Hospital for Rheumatic Diseases,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of Gynecology**.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ung Cheol Shim*, Tae-Hwan Kim, Jae-Bum Jun, Sung Soo Jung, In Hong Lee, Sang-Cheol Bae,

Jung Hye Hwang**, Young Jin Moon**, Soo Hyun Cho**, Tae Yeal Choi**, Dae-Hyun Yoo, and Seong Yoon Kim.

Introduction: Infectious etiology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in rheumatoid arthritis (RA), and many bacteria and virus have been considered. Normal vaginal flora is dominated by lactobacilli which decrease the vaginal pH through production of acidic products so that infectious disease by other pathogenic organisms could be prevented. Also, vaginal pH generally becomes more acidic in pregnancy. In the respect of common mucosal immunity, primed lymphocytes are circulating into intestinal lymphoid organ, genitourinary organ and joints.

Aims: To evaluate the vaginal environment of the patients with RA.

Methods: Vaginal specimens were obtained from 80 patients with RA and 80 control subjects. We examined the vaginal pH, clue cell and conducted amine test, Gram stain, and vaginal culture. We interpreted the results of Gram stain with scoring system for vaginal smear by Nugent.

Results: In postmenopausal group, the average vaginal pH was higher in RA (6.56) than in control group (5.76), ($p=0.051$). The average of Gram stain score was also higher in RA (4.6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1.23), ($p<0.01$). The same results were shown in premenopausal groups (vaginal pH, 6.02 and 4.51, $p<0.01$, and Gram stain score, 4.50 and 0.72, $p<0.001$, respectively). There was in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dose of steroid and vaginal pH ($r=0.19$, $p=0.37$) or Gram stain score ($r=0.15$, $p=0.539$).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balance of the vaginal ecosystem was broken in the patients with RA, and it might be one of the etiologic factors or the aggravating factor in RA.

류마티스 슬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166}\text{Ho-CHICO}$ 를 이용한 방사선 활막절제술의 장기간 추적관찰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전재범*, 배상철, 김석준**, 고희관, 심승철, 장대국, 김태환, 정성수, 이인홍, 유대현, 김성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시 다양한 항류마티스제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활막염이 지속되는 경우 활막을 제거하는 활막절제술이 도움이 된다. 홀뮴-166 ($^{166}\text{Ho-CHICO}$)을 이용한 방사선 활막절제술은 12 주간의 단 기간 임상시험에서 우수 40%, 양호 40%로 80%의 환자에서 임상적 호전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166}\text{Ho-CHICO}$ 를 이용한 방사선 활막절제술의 장기간 추적관찰의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1996년 1월 이후 $^{166}\text{Ho-CHICO}$ 를 이용한 방사선 활막절제술을 시행받은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66}\text{Ho-CHICO}$ 를 슬관절을 천자한 후 가능한 활액을 제거한 다음 홀뮴을 주입하였으며, 주사후 발생하는 일시적 부종을 막기 위해 triamcinolone으로 flushing하였다. 평가는 우수, 양호, 그리고 불량으로 평가하였는데, 우수는 동통 및 활액이 없고 관절운동이 상당히 개선된 경우, 양호는 부분적 동통 및 활액의 감소가 있고 관절운동이 잘 유지되는 경우, 그리고 불량은 계속되는 동통 및 활액이 있고 관절운동의 장애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로 하였다.

대상환자는 25명, 27슬관절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24명,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1명이었는데 중도탈락한 4명을 제외한 23명을 평가하였다. 평균 관찰기간은 15.8개월 (5-25)이었다. 치료효과는 우수 30%, 양호 35%, 그리고 불량 35%로 전체적으로는 65%의 임상적 호전율을 보였다. 관절강 밖으로의 방사선 누출은 미미하였으며, 주사시기에 가역적인 슬관절의 종창 및 피부수포 외에는 추적관찰동안 특이한 부작용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166}\text{Ho-CHICO}$ 를 이용한 방사선 활막절제술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 슬관절염의 치료에서 단기간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추적관찰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인 치료법으로 사료된다.